

고려후기의 영토분쟁

- 쌍성총관부와 동녕부를 중심으로 -

신 안 식*

1. 머리말
2. 원 직할령의 형성
3. 영토수복 활동
4. 맺음말

1. 머리말

고려의 대몽전쟁기(1231~1270, 고종 18~원종 11) 지방사회의 저항이 대정부·대몽골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반면, 전쟁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주목되는 사실은 투몽(投蒙) 현상이었다. 대몽전쟁기의 저항에는 일반 민의 유망(流亡)과 농장으로의 투탁(投託) 등도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이는 강도(江都) 정부의 가혹한 수탈과 산성·해도입보책(山城·海島入保策)과 같은 대몽항쟁

*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전략에 대응한 행위였다. 이에 비해 민의 투몽 행위는 항쟁의 왜곡된 표현이기도 하였으나,¹⁾ 토지탈점으로 인한 토지 소유관계의 변화와²⁾ 대몽전쟁 수행을 위한 과중한 부세수탈을 피하고 생활의 근거지인 지방사회를 보호하려는 민의 자위적 대응이었다는³⁾ 점 또한 지적되었다. 결국 투몽 행위는 몽골의 고려 통제방식과도 관련되어 원나라 지역으로 인구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대몽전쟁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고려 중앙정부에 반기를 든 세력들이 몽골에 직접 투항하였고, 이는 원나라 직할령을 배태한 결과를 가져왔다. 고려의 영토로서 원나라 직할령이 되었던 지역은 쌍성총관부(雙城總管府)⁴⁾·동녕부(東寧府)⁵⁾·탐라총관부(耽羅總管府)⁶⁾ 등이다. 이들 지역이 주목되는 것은 원나라 직할령일 뿐만 아니라 쌍성총관부와 동녕부는 북방지역으로 이후 고려와 원나라의 변경문제로도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쌍성총관부의 설치가 고려의 항복으로 대몽강화교섭이 이루어지는 초기였다는 사실과 동녕부가 무인정권의 몰락 및 삼별초 항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원나라 직할령이 되었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들 지역은 북방으로부터 국도(國都) 개경(開京)을 보위하는 중요한 지역이었고, 이를 직할령으로 삼았다는 것은 고려 중앙정부의 본토 장악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고 하겠다.⁷⁾

1) 투몽에 대해서 尹龍嫻은 민생과 관련된 民擾의인 성격이며 항몽 전열을 약화시키고 적의 침략전쟁 수행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변태적인 형태의 저항 사건으로 파악하였다(「高麗 對蒙抗爭期の 民亂에 대하여」, 『史叢』 30, 1986, 53~55쪽).

2) 姜晋哲, 「高麗의 權力型 農莊에 대하여」, 『韓國中世土地所有研究』, 1989, 205~209쪽.

3) 申安湜, 『高麗 武人政權과 地方社會』, 景仁文化社, 2002, 273~280쪽.

4)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5년 12월 기축.

5)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1년 2월 정축.

6) 『고려사』 권27, 세가27, 원종3, 원종 14년 윤6월 병진.

7) 쌍성총관부와 동녕부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에서 자세히 언급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양계(兩界) 지역에 설치되었던 쌍성총관부와 동녕부의 설치와 수복 과정에서 나타난 고려왕조의 영토의식을 살펴보고 한다. 북방지역의 영토분쟁은 고려전기 성종~현종대의 거란 침략과 고려중기 숙종~예종대의 여진 정벌 등에서도 나타났다. 이러한 대외적 영토분쟁의 경험은 원 간섭기의 직할령 설치와 수복 과정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원 간섭기의 영토분쟁에 대한 이해는 고려왕조의 영토의식과 국경의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⁸⁾

2. 원 직할령의 형성

가. 쌍성총관부

쌍성총관부는 1258년(고종 45) 12월 조휘(趙暉)·탁청(卓靑) 등이 몽골에 투항함으로써 이루어졌다.⁹⁾ 이들이 투항하게 된 배경은 고려의 대몽항쟁의 전술에서 비롯되었다. 고종 45년 몽골의 산길대왕(散吉大王) 등이 몽골 군사를 이끌고 동북면 일대를 침입했을 때 동북면병마사 신집평(愼執平)은 고주(高州)·화주(和州)·정주(定

8) 이 글은 필자의 고려시대 강역 연구(「고려시대의 강역」, 『한국군사사』 11, 육군 군사연구소, 2012, 251~351쪽) 중에서 원간섭기 북방영토에 대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9) 쌍성총관부에 관한 연구 성과로는 다음 논문들이 주목된다. 方東仁, 「雙城總管府考(上)」, 『關東史學』 1, 1982; 方東仁, 「東寧府置廢小考」, 『關東史學』 2, 1984; 金九鎭, 「麗元의 領土紛爭과 그 歸屬問題 - 元代에 있어서 高麗本土와 東寧府·雙城總管府·耽羅總管府의 分離政策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7, 국사편찬위원회, 1989; 方東仁, 「麗·元 關係의 再檢討 - 雙城總管府와 東寧府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17, 국사편찬위원회, 1990; 周采赫, 「몽골·고려사 연구의 재검토」, 『國史館論叢』 8, 국사편찬위원회, 1989; 이정신, 「쌍성총관부의 설립과 그 성격」, 『韓國史學報』 18, 2004.

州)·장주(長州)·의주(宜州)·문주(文州) 등 15주의 주민들을 저도(猪島)로 옮겼으나, 저도의 성이 크고 사람은 적어 수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죽도(竹島)로 옮기려 하였다. 그러나 죽도는 너무 좁고 또 우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옮겨 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신집평이 강제로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쳤기 때문에 죽도로 옮겨간 사람은 10명 중 2~3명에 불과하였다. 한편 죽도로 이주한 자들은 식량이 부족하여 중앙 정부에 식량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식량을 운반해 오도록 독촉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평이 심해지고 군사들의 수비도 해이해지자 이 틈을 타서 조휘·탁청 등이 삭방도(朔方道)의 등주(登州)와 문주(文州) 등의 사람들과 모의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급기야 몽골에 투항까지 하였던¹⁰⁾ 것이다. 이후 조휘·탁청은 몽골로부터 총관(總管)과 천호(千戶)로 각각 임명되었다.

조휘는 본래 한양부(漢陽府) 사람이었고, 뒤에 용진현(龍津縣)으로 옮겨온 인물이다.¹¹⁾ 조휘가 한양부에서 용진현으로 옮겨간 시기와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무인집권기의 시대상을 고려해 볼 때, 유민(流民)의 발생과 중앙에 의한 지방사회의 통제 강화, 재지세력 간의 지방사회 주도권 쟁탈 등과 같은 재지질서의 변동에서 밀려난 인물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또한 조휘가 용진현으로 옮겨가긴 했지만 이 지역의 재지세력에 의해 차별 받았을 것으로도¹²⁾ 여겨진다. 탁청 역시 자세한 이력을 알 수 없지만, 조휘와

10) 『고려사절요』 권17, 고종 45년 10월.

11) 『고려사』 권130, 열전43, 반역4, 조휘.

12) 재지사회에서 이탈하여 타 지역으로 옮겨간 사례 중에 그 지역 사람들의 반감을 받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5년 5월, “是月 盜起橫川 殺橫及洪川二縣民三十餘人 初 橫川民屎加大 有八子一壻 居山谷間 九人漁獵以生 洪·橫人 疾之 訴於道內巡行夜別抄指揮 請捕之 至其家 會九人出獵 惟取父母妻子 盡殺之 於是 九人謀報讎 遂起爲盜 至忠淸道 夜涉簞淺 疑爲狄兵 朝野驚擾 使夜別抄探之 乃知”).

비슷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런데 조휘·탁칭이 몽골에 투항했던 고종 45년 12월이 시기적인 면에서 주목된다. 우선 고종 45년 3월에 대사성 유경, 별장 김인준 등이 집정자 최의를 제거함으로써 최씨정권이 무너졌고,¹³⁾ 이를 기회로 몽골의 대대적인 침략이 감행되기에 이르렀다. 몽골은 4대 헌종(憲宗, 1250~1259, 고종 37~46)이 즉위하면서, 고려에 대한 적극적인 침략을 가해 왔다. 특히 고종 45년 3월 최씨정권의 몰락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몽골의 침략은 더욱 강렬했다. 고종 45년 4월에 몽골 군사 척후 기병 1,000명이 수안(遂安) 경내에 침입하였고,¹⁴⁾ 몽골 장수 여수달(余愁達)과 보파대(甫波大) 등이 각각 기병 1,000명을 거느리고 와서 가주(嘉州)와 괘주(郭州)에 진을 쳤으며,¹⁵⁾ 이어서 몽골 군사의 척후 기병이 서경(西京)을 지났다고 하므로 강도(江都)에 계엄령을 내렸는가 하면,¹⁶⁾ 몽골 군사가 염주(鹽州)와 백주(白州) 등 고을에 들어오고 여수달은 평주 보산역(平州 寶山驛)에 진을 치기도¹⁷⁾ 했다. 또한 몽골의 주력 부대를 이끈 차라대(車羅大)는 옛 서울 개성에 주둔하였는데 일부 기병들이 승천부(昇天府)·교하(交河)·봉성(峯城)·수안(守安)·동성(童城) 등지에 침입하여 주민들의 양과 말을 약탈하였고,¹⁸⁾ 몽골 기병과 군사들이 갑곶(甲串)에 진을 치기도¹⁹⁾ 하였다.

이와 같은 몽골의 기세는 강도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을 뿐만 아니라 국왕과 무인정권에서도 몽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3)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5년 3월 병자.

14)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5년 4월 신축.

15)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5년 6월 기축.

16)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5년 6월 경자.

17)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5년 6월 갑진.

18)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5년 8월 경인.

19)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5년 9월 임자;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 3, 고종 45년 9월 경오.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런 상황을 더욱 압박했던 것이 조휘·탁청 사건이었다.

몽골 장수 차라대 부대에 이어서 또 다른 주력부대를 이끈 산길 대왕과 보지관인(普只官人) 등이 화주(和州)에 주둔하게²⁰⁾ 되었다. 이 때 조휘·탁청이 화주 이북을 들어 몽골에 투항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몽골에서는 곧바로 이 지역을 쌍성총관부로 만드는 동시에 조휘에게는 총관, 탁청에게는 천호라는 벼슬을 내려주었다. 그런데 원나라 기록에서는 조휘·탁청을 찾아볼 수 없다. 대몽전쟁 시기에 고려 영토를 원나라의 직할령으로 만든 최초의 사건이었고, 이 지역이 공민왕대에 고려로 탈환될 때까지 약 100년 가까이 직할령으로 있었지만 원나라 기록에서 이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몽골은 1231년(고종 18)에 고려 침략을 개시한 이래로 약 27년 동안 줄기차게 침략해 왔지만, 고려 중앙정부를 좌우하던 무인정권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지 못했다. 하지만 최씨정권의 마지막 집정자 최의가 제거 당함으로써 무인정권의 권력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런 상황은 몽골에게 고려 국왕과 무인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 결과 강도 정부는 1259년(고종 46) 몽골에 항복하게 되었고, 고려의 태자가 직접 몽골 조정으로 친조(親朝)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렇다면 조휘·탁청이 몽골에 투항하여 고려 영토를 쌍성총관부로 삼았다면, 그 관할 영역이 어디였는지가 궁금해 질 수밖에 없다. 쌍성총관부 관할 영역은 고려의 동북 변경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이는 곧 예종대 윤관이 개척한 9성의 위치와도²¹⁾ 연결된다.

20) 『고려사』 권24, 세가24, 고종3, 고종 45년 12월 기축.

21) 9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두만강 북쪽 700리설(『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方東仁, 『韓國의 國境劃定연구』, 一潮閣, 1997, 115~175쪽; 金九鎭, 「公嶮嶺과 先春嶺碑」, 『白山學報』 21, 1976), 김주이남설(韓百謙, 『東國

동계 지역과 관련된 지리적 동향은 <표 1>과 같다.

<표 1> 동계 지역의 지리적 동향

사건	지 명
고려장성의 동계	요덕진 · 정변진 · 화주
예종 3년 9성	함주 · 영주 · 웅주 · 복주 · 길주 · 의주 · 공협진 · 통태진 · 평용진
예종 4년 女眞 반환	함주 · 영주 · 웅주 · 복주 · 길주 · 송녕진 · 통태진 · 진양진 · 선화진
고종 45년	쌍성총관부 설치
공민왕 5년 수복	화주 · 등주 · 정주 · 장주 · 예주 · 고주 · 문주 · 의주 · 선덕진 · 원흥진 · 영인진 · 요덕진 · 정변진 등

※ 이 도표는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동계조를 참고하여 정리함.

<표 1>에서 보면, 고종 45년 12월 조휘·탁청이 몽골에 투항한 이후 몽골은 화주에 쌍성총관부를 세웠다고 하였지만, 그 관할 지역이 자세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공민왕 5년에 쌍성총관부를 탈환했을 때 수복한 지명들이 확인되는데, 화주·등주·정주·장주·예주·고주·문주·의주·선덕진·원흥진·영인진·요덕진·정변진 등이었다. 그 외의 지역으로 『고려사』 지리지 동계조에서 함주·복주·길주·북청주부 등이²²⁾ 확인된다. 이 중에서 문주·등주·고주·화주·장주·정주·요덕진·영인진·선덕진·원흥진 등은 역참(驛站) 지역으로²³⁾ 동계의 교통 요지였다.

地理志』; 柳馨遠, 『旅菴全書』 疆界考; 申景濬, 『疆界考』 東女眞 9성조; 丁若鏞, 『疆界考』; 金正浩, 『大東地志』, 함흥평야설(津田左右吉, 「尹瓘征略地域考」, 『朝鮮歷史地理』, 東京 南蠻州鐵道株式會社, 1913; 池內宏, 「完顏氏の曷懶甸經略と尹瓘の九城の役」,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9, 1923) 등이 있고, 최근에는 이 지역을 직접 답사하여 두만강 북쪽에 위치를 비정한 연구도(최창국, 「선춘현과 공협진: 고지도 및 『세종실록』 『지리지』를 바탕으로」, 『안보문화와 미래』 창간호, 한국미래문제연구원, 2008) 있다.

22)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동계.

23) 『고려사』 권82, 지36, 병2, 참역, 삭방도.

쌍성총관부의 치소였던 화주는 개경에서 ‘장단 → 동주 → 교주 → 철령 → 등주 → 화주’로 이어지고, 서쪽으로 ‘화주 → 서경 → 의주(義州)’로 연결되는 동계 지역의 교통 요충지였다. 또한 화주는 북쪽으로 장주와 정주를 거쳐 동북쪽의 여진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도 하였다.²⁴⁾ 이들 지역은 개성에서 동북쪽으로 치우쳐 있었고, 산악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방어에 취약하였다.

〈표 2〉 삭방도의 성곽 시설과 주진군²⁵⁾

양계	역도	성곽	넓이 (間)	문	수구	성두	차성	첩원 (間)	중성 (間)	연대	주진군	
동계	삭방도	장평진	535	4						광종 20	672	
		화주	1,014	6	3				180	광종 24	1,656	
		고주	1,016	6						광종 24	1,158	
		문주	578	6						성종 3	1,088	
		진명현	510	5						목종 8	495	
		금양현	768	6						목종 8	541	
		용진진	501	6						목종 9	517	
		등주	602	14	2					목종 11	1,396	
		의주	652	5						현종 7	827	
		요덕진	634	6						현종 14	1,039	
		장주	575	戌 6	靜北·高嶺·掃兇·掃蕃·壓川·定遠						정종 10	1,449
		정주	809	戌 5	防戌·押胡·弘化·大化·安陸						정종 10	1,916
		원흥진	683	戌 4	來降·壓虜·海門·道安						정종 10	1,425
영흥진	424	4							정종 12	619		
평균(약)		664	6							1,057		

〈표 2〉에서 보면, 삭방도 지역의 성곽은 북계(北界)의 성곽과는 규모 면에서는 비슷하였지만 성곽 시설과 주진군의 인원수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²⁶⁾ 그것은 운중도(雲中道)와 삭방도 지역이

24) 원 간섭기에 들어가면 화주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북쪽으로 ‘정주 → 함주 → 황초령 → 강계 → 만포’ 등 원나라로 통하는 새로운 驛路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25) 동계 주진군의 현황은 行軍의 인원수가 적혀 있지 않고 기록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추정치가 근사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때문에 〈표 2〉의 주진군은 基幹常備軍을 중심으로 계산하였다(李基白, 「高麗 兩界의 州鎮軍」, 『高麗兵制史研究』, 1968, 250~253쪽).

26) 신안식, 「고려시대 兩界의 성곽과 그 특징」, 『軍史』 6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오늘날의 함경도 일대로서 평야보다는 산악 지역이 많이 분포했고, 27) 삭방도 지역은 동여진과의 접경 지역이었으므로 흥화도(興化道) 지역보다 방어적인 면에서 중요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해된다.

장평진·진명현·용진진·금양현·원흥진의 성곽은 해안과 인접한 거리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해적의 침공을 대비하였던²⁸⁾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문종이 임금이 되자 병부낭중 김경을 파견하여 동해로부터 남해에 이르기까지 그 연해에 성보(城堡)와 농장을 만들어 해적 침공의 요충을 장악하게 하였다.”라는²⁹⁾ 기록을 통해서도 이들 지역의 역할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주성은 해적 소탕에도 일조하였다.³⁰⁾

화주·고주의 성곽은 광종대에 축조되었는데, 이것들은 삭방도 지역의 다른 성곽보다 규모 면에서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화주는 995년(성종 14)에 화주안변도호부(和州安邊都護府)로 고쳤다가, 1018년(현종 9)에 낮추어서 화주방어사(和州防禦使)로 만들어 본영

27) 『고려사』 권7, 세가7, 문종1, 문종 8년 8월 경신, “東路兵馬使奏 長州地高且險 城中無井 乞令設柵南門外平地 徙民居之 有急入城 從之”

28) 『고려사』 권7, 세가7, 문종1, 문종 4년 1월 기축, “放朝賀 東北面都兵馬使朴成傑 奏 上年十月 海賊 奪鎮溟兵船二艘而去 兵馬錄事文揚烈 卽率兵船 與元興都部署判官宋齊罕 追至賊穴 焚蕩廬舍 斬馘二十級而還 其功可賞 制 付都兵馬使”; 『고려사』 권8, 세가8, 문종2, 문종 22년 7월 정유, “東界兵馬使奏 判官任希悅 都部署副使裴行之 元興鎮副使石秀珪等 又巡椒島 夜至閻羅浦 遇賊船艘 擊破三艘 餘賊登岸 奔潰 追斬三十餘級 王厚加爵賞”; 『고려사』 권9, 세가9, 문종3, 문종 27년 6월 병신, “兵馬使奏 東蕃海賊 寇東京轄下波潛部曲 奪掠民口 元興鎮都部署軍將 率戰艦數十艘 出椒島與戰 斬十二級 奪俘十六人 王喜 賜知兵馬事秘書監李成美 領軍都部署將軍廉漢等 銀藥合各一事 其餘有功將吏 職賞有差”; 『고려사』 권11, 세가11, 숙종1, 숙종 원년 6월 갑술, “鎮溟都部署使 文州防禦判官李順蹊等 與海賊戰 敗之 斬首十七級”; 『고려사』 권11, 세가11, 숙종1, 숙종 2년 7월 임신, “東女眞賊戰三艘 寇鎮溟縣 東北面兵馬使金漢忠 遣判官姜拯 與戰克之 獲船三艘 斬首四十八級”

29) 『고려사』 권82, 지36, 병2, 성보.

30) 『고려사』 권11, 세가11, 숙종1, 숙종 원년 6월 갑술, “鎮溟都部署 使文州防禦判官李順蹊等 與海賊戰敗之 斬首十七級”

(本營)으로 삼았을 정도로³¹⁾ 삭방도 지역의 중심이었다. 또한 요덕 진성은 삭방도에서 운중로(雲中路)로 가는 길목에³²⁾ 자리 잡고 있었다.

‘고려장성(高麗長城)’이 축조된 이후 정종대에는 정주·선덕진·원흥진에 관문을 설치하였고,³³⁾ 장주·정주·원흥진에는 보자(堡子)인 수(戍)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성곽들의 축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었고³⁴⁾ 방어력의 효율성을 중요시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점은 1108년(예종 3) 윤관의 여진 정벌에서 그 효율성을 잘 보여주었다. 이때의 정벌군 17만이 주둔한 곳이 장춘역으로³⁵⁾ 장주 소속이었다. 장주는 <표 2>에서도 볼 수 있듯이 6개의 수(戍)가 설치되었고, 정벌군이 북방 지역으로 나아가는데 이용된 관문이 정주였다.

함주·복주·길주·북청주부 등은 1356년(공민왕 5) 쌍성총관부를 탈환했을 때 같이 수복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일찍이 예종대의 윤관이 개척한 9성에도 포함되었던 지역들이다.³⁶⁾ 이들 지역은 여진에게 반환된 지역이었지만, 원 간섭기에는 쌍성총관부의 관할 지역으로 편성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두만강 북쪽 지역으로

31)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동계, 화주.

32) 『고려사』 권100, 열전13, 두경승, “景升 踰鐵關從耀德 雲中路行 所至風靡”

33)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동계, “前此 朔方道以都連浦爲界築長城 置定州·宣德·元興三關門”

34) 『고려사』 권6, 세가6, 정종 10년 11월 을해, “兵馬使金令器奏 今築長·定二州及元興鎮城 不日告畢勞效甚多”

35) 『고려사절요』 권7, 예종 2년 12월 을유, “曠·延寵至東界 屯兵于長春驛 軍凡十七萬 號二十萬”

36) 예종대의 9성은 다음과 같다.

성곽	咸州	英州	雄州	福州	吉州	宜州	公險鎮	通泰鎮	平戎鎮
규모(間)		950	992	774	670				
徙民(戶)	13,000	10,000	10,000	7,000	7,000	7,000	5,000	5,000	5,000
기타	鎮東軍	安嶺軍	寧海軍				鎮	鎮	鎮

나아가는 중요 교통로였을 것으로도 생각된다.³⁷⁾

따라서 화주를 중심으로 한 쌍성총관부는 고려의 동북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거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고려의 중앙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들의 도피처로도 이용되었다. 고려의 입장에서는 영토 상실과 외세의 지리적 압박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공민왕 5년 고려장성 북쪽의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도 작용했다고 하겠다.

나. 동녕부

쌍성총관부에 이어서 몽골의 직할령이 되었던 지역이 동녕부였다.³⁸⁾ 이 사건은 1269년(원종 10) 10월에 서북면의 최탄(崔坦)과 한신(韓愼) 등이 반란을 일으켜 몽골로 투항함으로써³⁹⁾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이들 뿐만 아니라 삼화현인 교위 이연령(三和縣人 校尉李延齡)·정원도호낭장 계문비(定遠都護郎將 桂文庇)·연주인 현효철(延州人 玄孝哲) 등이 ‘무진정변(戊辰政變)’⁴⁰⁾으로 집권한

37) 鄭杓根, 『高麗·朝鮮初の驛路網과驛制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08쪽.

38) 동녕부에 대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方東仁, 「東寧府置廢小考」, 『關東史學』 2, 1984; 朴焯, 「高麗末 東寧府征伐에 대하여」, 『中央史論』 4, 중앙대학교 사학연구회, 1985; 金九鎮, 「元代 遼東地方의 高麗軍民」, 『李元淳教授華甲紀念史學論叢』, 교학사, 1986; 金九鎮, 「麗·元의 領土紛爭과 그 歸屬問題 - 元代에 있어서 高麗本土와 東寧府·雙城總管府·耽羅總管府의 分離政策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7, 국사편찬위원회, 1989; 方東仁, 「麗·元關係의 再檢討 - 雙城總管府와 東寧府를 중심으로」, 『국사관논총』 17, 1990; 이정신, 「원간섭기 동녕부의 존재형태」, 『韓國中世社會의 諸問題 - 金潤坤教授定年紀念論叢』, 韓國中世史學會, 2001; 이정신, 『고려시대의 정치변동과 대외정책』, 경인문화사, 2004; 池内宏, 「高麗恭愍王朝의 東寧府征伐に就いての考」, 『東洋學報』 8-2, 東洋學術協會, 1918.

39)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0년 10월 을해;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0년 10월 경자.

40) 입연에 의해 김준이 제거 당한 시기가 1268년(원종 9) 곧 ‘무진년(戊辰年)’이란

임연(林衍)의 처단을 내세우며 저항을⁴¹⁾ 일으켰다. 이들은 재지세력의 일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연주인 현효철은 일찍이 명종대에 조위총이 저항을 일으켰을 때 조위총 세력에 끝까지 가담하지 않고 저항하여 무인정권의 포상을 받았던 현덕수(玄德秀) 일족으로⁴²⁾ 파악된다. 그런데 연주인이 임연정권에 대한 저항에 가담하였던 것은 대몽전쟁기 지방사회의 황폐화 및 몽골과의 긴장관계에 따른 새로운 전쟁의 조짐에 맞선 지방사회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최탄 등이 저항을 일으킨 시기는 임연의 원종 폐립에 따른 몽골의 압력이 가중되어 전쟁 기운이 감돌던 시점이었다. 이들은 용강(龍岡)·함종(咸從)·삼화현(三和縣)의 사람들을 모아 함종현령 최원(崔元)을 죽이고, 밤에 가도(假島)의 군영에 들어가 분사어사 심원준(沈元濬)·감창 박수혁(朴守奕)과 경별초(京別抄) 등을 죽였다. 이들이 처단한 지방관과 경별초는 무인정권의 전국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이다. 이로 볼 때 이들의 저항은 무인정권의 정국 운영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서경유수 및 용주·영주·철주·선주·자주 등 5개 주의 관리들을 죽이고 의주부사 김효거(金孝巨) 등 22명을 붙잡아 몽골에 투항하였다.⁴³⁾ 이들이 투항하자 몽골은 이들 지역에 동녕부를 설치하여⁴⁴⁾ 무인정권을 압박하고 고려 국왕을 견제하는 방편으로 이용하였다.⁴⁵⁾ 동녕부는 쌍성총관부와 더불어 고려 내정이 문란한 틈을 타서 역(役)을 회피하려는 자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자의

점에서 이 정변을 ‘무진정변(戊辰政變)’이라고도 한다.

41) 『고려사절요』 권18, 원종 10년 10월.

42) 『고려사』 권99, 열전12, 현덕수.

43)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0년 10월.

44)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1년 2월 정축.

45) 주채혁, 「몽골—고려사 연구의 재검토」, 『國史館論叢』 8, 국사편찬위원회, 1989, 45쪽.

도피처로서 이용되기도 하였다.⁴⁶⁾ 물론 최탄 등의 투몽은 지배층의 수탈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민의 투몽과는 구별되었지만, 이들이 혼란스런 고려사회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했다는 점은 무인정권 붕괴와 저항세력들의 동향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몽골에서는 이들 지역을 곧바로 동녕부로 삼았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몽골의 행중서성(行中書省)에서⁴⁷⁾ 관리했다. 이 때 몽골에 편입된 지역이 서경의 54개 성과 서해도의 6개 성이었다.⁴⁸⁾ 이런 점은 앞서 동계의 조취·탁청 등이 항복했을 때 곧바로 쌍성총관부를 설치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고려와 몽골의 강화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쟁점이 개경으로의 출륙환도(出陸還都)였다. 때문에 쌍성총관부의 설치와 멀리 떨어진 동북 지역을 직할령으로 삼음으로써 강도정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결과 고종 46년에 고려의 항복뿐만 아니라 태자의 입조도 성사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하지만 김준정권과 임연정권은 최씨정권의 대몽항전을 계속 유지했던 반면, 국왕 원종은 몽골과 더욱 밀착하려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원종 11년에 “최탄이 몽고 군사 3,000명을 청하여 서경으로 와서 진수하였다. 황제는 최탄과 이연령에게 금패(金牌)를 현효철과 한신에게는 은패(銀牌)를 차등 있게 주었고, 조서를 내려 직접 몽골에 속하게 하되 서경을 동녕부라 개칭하여 자비령(慈悲嶺)을 고려와 국경으로 삼았다.”라고⁴⁹⁾ 했듯이, 최탄이 몽골 군사 3,000명을 진수시키는 동시에 몽골의 직할령으로 하되 그 명칭을 이 때 와서

46)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1월 윤11월.

47) 행중서성은 행성(行省)이라고도 했는데, 본래 중앙의 정무기구인 중서성의 재상이 지방에 파견되어 임시로 사무를 처리한 것에서 기원하였다. 최고 관직인 승상은 종1품이다.

48)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0년 12월 신묘.

49)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1년 2월 정축, “崔坦請蒙古兵三千 來鎮西京 帝賜崔坦李延齡金牌 玄孝哲韓愼銀牌有差 詔令內屬 改號東寧府 畫慈悲嶺爲界”

동녕부로 바뀔음을 알 수 있다.

쌍성총관부에 이어서 동녕부의 설치에 국왕 원종 및 무인정권에 계는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이런 점은 원종 11년 2월에 동녕부가 설치된 이후 같은 해 5월에 무인정권 붕괴⁵⁰⁾ 및 삼별초 해체⁵¹⁾ 등 일련의 정치적인 상황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리라 판단되는 근거이다.

결국 쌍성총관부와 동녕부의 설치에 고려 내부의 혼란을 틈탄 재지세력의 자진 투항 및 몽골의 대고려 압박정책 등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곧 대몽전쟁의 실패로 인한 영토의 상실이었고, 무인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왕권의 회복을 원나라에 의지한 결과였던 것이다.

3. 영토수복 활동

가. 동녕부의 복구

원나라 직할령으로써 가장 먼저 수복된 지역은 동녕부였다. 직할령이 된 시기는 쌍성총관부보다 늦었지만 원나라 직할령 중에서 가장 먼저 수복된 것은 그만큼 고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동녕부 수복 과정을 『고려사』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50)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1년 5월 계축, “御史中丞洪文系 直門下省事 宋松禮誅惟茂 流其黨司空李應烈 樞密院副使宋君斐 罷書房三番及造成色 朝野大悅”.

51)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1년 5월 무진, “遣將軍金之氏入江華 罷三別抄”.

〈표 3〉 동녕부 수복 과정

①	원종 10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연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최탄 · 한신 반란 · 최탄 무리가 반역한 실상을 원나라에 보고
②	원종 10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나라 황제의 조서로 최탄 무리와 서경 54성 및 서해 6성 군민 등이 투항했음을 확인하고, 최탄에게 칙명을 내려 원나라 행중서생에서 관리 · 동선역의 역리들이 최탄에게 투항
③	원종 11년 정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나라 도당에 최탄의 모함을 항변
④	원종 11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나라의 조서를 통해 서경을 동녕부로 개칭 · 자비령을 고려와 국경으로 삼음 · 원종이 원나라 황제에게 글을 보내 서경 반환 요청
⑤	원종 11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유무 제거로 무인정권 붕괴 · 삼별초 해산
⑥	원종 11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별초 항쟁
⑦	원종 11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녕부 반환 요청
⑧	원종 13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나라에서 파견한 군대 식량과 사료를 동녕부에서 공급하도록 요청
⑨	원종 15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녕부로 도망간 자들을 동정군으로 보충 요구
⑩	충렬왕 즉위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경 조유를 동녕부에 파견 · 고려에서 도망간 사람들을 조사하여 찾아오게 함
⑪	충렬왕 즉위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경대흥부록사 양수 등이 왕을 따라 갈 것을 요청하여 수행하는 것을 최탄이 도중에 양수를 잡아감. · 왕이 서경에 이르렀을 때 서경이 동녕부에 속했기 때문에 왕은 은과 모시(縵)를 내어 식량과 사료를 바꿔다가 따라온 신하들에게 줌
⑫	충렬왕 2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녕부 천호 한신이 와서 자기 편 사람들을 심사함
⑬	충렬왕 4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신을 동녕부에 파견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을 심사하여 데려오게 함
⑭	충렬왕 4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과 포(布)로 동녕부에서 쌀을 사들임 · 서북면의 여러 고을들이 모두 동녕부에 속했는데, 오직 의주 · 정주 · 인주 세 고을은 붙지 않고 관리들과 백성들이 나와 왕을 맞았으며 공급과 접대가 다른 고을보다 융숭함
⑮	충렬왕 4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녕부 반환 요구
⑯	충렬왕 4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낭장 조갑과 녹사 이구를 동녕부에 파견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을 찾아오기 위하여 조사하고 소집하게 함
⑰	충렬왕 4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윤 조유와 별장 이봉을 동녕부에 보내 곡주 · 수안군 · 은률현의 사람들과 물건들을 조사하여 데려오게 함

⑮	총렬왕 5년 2월	· 소윤 조유를 동녕부에 보내 기미년(己未年, 고종 46, 1259) 이래로 서해도 백성으로 동녕부에 망명하여 간 자들을 조사하여 데려오게 함
⑯	총렬왕 6년 정월	· 친중장군 박연과 증랑장 이인을 동녕부에 보내 부장(夫匠)을 조사하여 데려오게 함
⑰	총렬왕 6년 4월	· 증랑장 지선을 동녕부에 보내 선대 임금들의 능묘를 발굴한 데 대하여 물음
⑱	총렬왕 6년 9월	· 원나라에서 야속달과 최인저를 보내 수달단으로 개원로 · 북경로 · 요양로에 있는 자들을 동녕부로 이송하였는데, 이것은 장차 일본 정벌에 동원하려는 것이었음
㉑	총렬왕 6년 11월	· 동녕부에서 관할하는 여러 성 및 동경로 연해의 주현들에 초공(精工) · 수수(水手)가 많으니 3,000명을 징발하여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게 하여 주기 바란다는 글을 원나라 중서성에 보냄
㉒	총렬왕 7년 정월	· 개원로 동녕부의 왕만호와 야선대왕이 모두 사신을 보내 왔는데, 일본 정벌 때문에 온 것이었음
㉓	총렬왕 8년 9월	· 친중장군 정인경을 요심(遼瀋)에 보내고, 증랑장 정복군을 동녕부에 보내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사하여 데려 오게 함
㉔	총렬왕 10년 4월	· 왕의 일행이 중화현에 들렀는데 원나라의 축응사 낭가대와 동녕부 달로화적 등이 와서 매와 말을 바침 · 동녕부에 들러 낭가대와 달로화적 등에게 은과 모시를 차등 있게 내림
㉕	총렬왕 10년 5월	· 동녕총관 홍중희가 와서 말을 바침
㉖	총렬왕 11년 정월	· 동녕부 천호 최탄 등이 와서 왕을 위하여 연회를 베풀
㉗	총렬왕 11년 11월	· 원나라에서 “동녕부가 우리나라의 수안 · 곡주를 빼앗으려고 다투었다.”는 이유로 단사관 소독해를 보내 시찰하게 하였고 또 동정(東征)을 위한 선박 건조도 독려함
㉘	총렬왕 13년 3월	· 원나라에서 형부시랑 육십(六十)을 보내 동녕부 사건을 조사 해명케 함
㉙	총렬왕 13년 8월	· 동녕부 역어증랑장 구천수가 쌍성의 첩자 홀도대와 덕산 등을 붙잡아 옴
㉚	총렬왕 16년 3월	· 황제의 명령으로 동녕부를 폐지하고 서북의 여러 성을 돌려줌 · 왕이 총관이었던 한신과 계문비를 대장군으로, 현원렬을 태복윤으로, 나공언과 이한을 장군으로 각각 임명함
㉛	총렬왕 16년 6월	· 대장군 한신으로 하여금 서경 군사들을 인솔하여 동경로 가서 합단을 방어하게 함

※ 이 도표는 『고려사』 권26~30의 내용을 참고함.

동녕부는 1269년(원종 10) 10월에 최탄 등이 몽골에 투항함으로써 성립되었다(〈표 5-13〉-①). 고려와 원나라의 교류에서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했던 곳이 서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는데, 원나라는 처음에 이를 직접 장악할 목적으로 행중서성에 예속시켰다(〈표 5-13〉-②). 하지만 원나라는 원종 11년에 이 지역을 동녕부로 개편함과 동시에 최탄을 총관으로 임명하여 총관부(總管府)로 승격시켰다.⁵²⁾ 이로써 원나라는 중원의 동북 일대를 아울렀던 개원로(開元路)를 중심으로 고려 영토에 쌍성총관부와 더불어 동녕부를 설치함으로써 그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⁵³⁾

동녕부에 예속된 북계 지역이 서경 54개 성, 서해도 6개 성 등 도합 60여개였고(〈표 5-13〉-②), 그 상세한 지역은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계 대부분의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원나라는 고려와의 국경을 자비령을 경계로 삼았다(〈표 5-13〉-④). 그런데 북계 전 지역이 동녕부에 예속된 것은 아니었음도 드러나는데(〈표 5-13〉-⑭), 이는 “왕이 의주에 머물렀다. 당시에 서북면의 여러 고을들이 모두 동녕부에 속했는데, 오직 의주·정주·인주 세 고을은 붙지 않고 관리들과 백성들이 서로 이끌고 와서 왕을 맞았으며 공급과 접대가 다른 고을보다 융숭하였다.”라고⁵⁴⁾ 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다. 북계의 대부분 지역을 동녕부에 예속시켰지만, 의주·정주·인주를 제외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이들 지역 또한 동녕부의 영향권에서

52)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1년 2월 정축.

53) 동녕부의 설치 결과를 주체혁은 “동녕부가 설치되면서 1269년~1270년에 걸쳐 몽골정권의 정치군사적 원조하에 결정적으로 武人정권이 제거되고 王政이 되살아나지만 이에 이어 삼별초세력의 섬멸전이 전개되었음을 볼 때, 이는 사실상 몽골 침략에 항전하는 고려세력의 씨름 말리는 작전기지의 성격에 갖는 것인 동시에 몽골정권의 입김에 의해 기사회생한 고려왕권과 몽골왕권의 가장 견고한 연결고리 구실을 한 것이었다.”고 평가하였다(앞의 논문, 1989, 45쪽).

54)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1, 충렬왕 4년 4월 기묘.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이다.

서경을 중심으로 한 동녕부는 국도 개경에서 의주를 넘어 원나라 지역의 심양로(瀋陽路)로 나아가는 주요 교통로였다. 이는 곧 고려 정부가 이 지역에 대한 수복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 이유이기도 했다.

동녕부가 원나라 직할령으로 넘어갔을 때 고려는 곧바로 반환을 요구했다. 동녕부로의 승격 이후 원종 11년 2월과 8월에 각각 반환을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표 5-13〉-④·⑦). 이런 점은 고려에서 강도정부가 아직 유지되었고, 원나라의 다음 목표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전진기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원나라에서 고려에 파견된 군대의 식량과 말의 사료를 공급하거나(〈표 5-13〉-⑧), 동녕부로 도망간 자들을 동정군으로 보충할 것(〈표 5-13〉-⑨) 등을 요구했던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고려에서는 동녕부 소속 특정 지역을 수복하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별장 이봉을 원나라에 파견하여 수안(遂安)·곡주(谷州)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라는⁵⁵⁾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안과 곡주는 원래 황주목 소속이었는데,⁵⁶⁾ 이들 지역은 개경에서 ‘평주(平州) → 협계(峽溪)’를 기점으로 동녕부와 쌍성총관부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교통의 요지였다. 이런 영토의 수복은 원나라와의 긴밀한 협조 내지는 비록 원나라의 직할령이었지만 양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고려 정부의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 정부가 동녕부 수복을 도모한 이유는 무엇보다 고려 본토로부터 인구의 대량 유출을 막으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구의 유출 배경으로는 전쟁 포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투몽 현상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55) 『고려사』 권28, 세가28, 충렬왕1, 충렬왕 4년 8월 정사.

56)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황주목, 곡주.

최씨정권의 몰락과 대몽강화 이후의 고려왕조는 전반적으로 사회가 불안정하였다. 그것은 국왕과 무인세력들 간의 갈등과 몽골의 압력 등이 가중되었고, 일반 민의 처지도 불안정한 정치운영에 따른 수탈의 가중과 몽골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인하여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집권 무인세력 및 권세가들에 의한 토지탈점과 관리들의 민에 대한 침탈, 몽골의 횡포 및 과중한 요구에 의한 부담 등이 지방 사회 동요의 요인이었다. 토지탈점은 무인정권의 전 시기를 통해서 자행된 것이었다. 그리고 중앙 통제의 이완에 따른 관리들의 빈번한 착취와 정부의 재정적인 보완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관리들의 부담이 곧 민의 침탈로 이어졌다고 하겠다. 특히 민의 처지에 가장 위협적인 사항은 몽골의 정복에 따른 복속사업과 물품 및 군량요구 등이었다.

이러한 실정은 민으로 하여금 대몽전쟁기부터 계속되어 온 저항을 확대시키게 하였다. 원간섭 초기에는 주로 기존 대몽항쟁의 지속과 정부에 대한 저항 또는 변칙적인 투몽 등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원간섭 초기는 대몽강화로 인하여 형식상 전쟁이 끝난 것으로 이해되는 시기였다. 그런데 국왕과 집권 무인세력은 대몽관계에 있어서 계속 대립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전국에 걸쳐 전면적인 전쟁의 기운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한 점은 이 시기에 아직까지 몽골의 요구대로 출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인정권이 그대로 온존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이해된다. 무인정권은 대몽강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들의 계속적인 정권유지에 있어서는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때문에 무인정권은 전국에 걸쳐 대몽강화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⁵⁷⁾ 또한 김준(金俊)과 임연은 이민족의 간섭이라는 위기감을 고조시켜 사직(社稷)의 보위

57) 고종 18년 몽골의 침략 이후 시행된 해도입보책이 다시 환원된 시기는 1261년(원종 2)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다(『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북계).

자로 자임함으로써 집권력을 강화하였다. 이는 곧 대몽전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정책에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따라서 민은 고려 정부와 몽골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저항세력의 동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1258년(고종 45) 조휘와 1269년(원종 10) 최탄 등의 투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투몽 현상은 “지금 어리석은 백성들 중에 역(役)을 도피하는 자, 죄를 범하고 도망한 자, 공사노비(公私奴婢)로서 천민 신분을 모면하려는 자들이 서로 모여, 귀국의 주둔군과 서경에 가서 의탁하고 있으면서 제멋대로 횡행하고 있다. 심지어 일반 민들을 유인해 가는 일들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라는⁵⁸⁾ 자료에 잘 반영되어 있다. 즉, 역에서 도피하려는 자, 죄를 범하고 도망치는 자, 공사노비들로 천민 신분을 모면하려는 자 등이 투몽하였던 것이다. 무인집권기 민의 저항 원인이 사회경제적·신분제적 모순에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투몽은 저항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 나타났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의 투몽 지역은 대체로 몽골군의 주둔 지역과 쌍성총관부·동녕부였다.

동녕부 지역으로의 투몽 방지대책으로 고려 정부는 추쇄책(推刷策)을(〈표 5-13〉-⑩·⑬·⑯·⑰·⑱·㉔) 마련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점을 원나라에서도 굳이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추쇄책만으로 내부의 반발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대몽강화 이후 원나라의 다음 목표는 일본 정벌이었다. 이를 위해 동녕부는 개원로(開元路)·북경로(北京路)·요양로(遼陽路) 등의 군사를 이송하는 기지로 이용되거나(〈표 5-13〉-㉑), 초공·수수 등과 같이 정벌에 필요한 인원을 보충하였고(〈표 5-13〉-⑨·㉒), 일본 정벌을 독려하는 임무(〈표 5-13〉-㉓·㉔)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동녕부는 고려 정부의 지배로부터 이탈하려는 세력의

58) 『고려사』 권26, 세가26, 원종2, 원종 11년 윤11월.

투항 혹은 원나라의 일본 정벌을 위한 지원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런데 고려 정부와 동녕부의 관계는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동녕부 지역이 원나라의 직할령이 됨으로써 서경에 이르렀던 원종 자신이 은과 모시를 내어 식량을 바꿔다가 신하들에게 주는(〈표 5-13〉-⑪) 등 영토의 상실을 실감할 수 있었고, 부족한 쌀을 동녕부에서 구입하기도(〈표 5-13〉-⑭) 하였다. 또한 원나라 지배가 강화되던 1284년(충렬왕 10) 이후에도 왕의 일행을 위해 원나라의 착응사 낭가대(郎哥歹)와 동녕부 달로화적(達魯花赤) 등이 와서 매와 말을 바치자 왕 또한 낭가대와 달로화적에게 은과 모시를 하사했고(〈표 5-13〉-⑳), 총관 홍중희가 말을 바치거나 천호 최탄 등이 왕을 위하여 연회를 여는(〈표 5-13〉-㉔·㉕) 등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녕부에서 황주의 수안과 곡주를 빼앗으려던 사건을 원나라 조정에서 직접 조사하여 해명하기도(〈표 5-13〉-㉘·㉙)하였다.

그런데 동녕부는 1290년(충렬왕 16) 3월에 “황제의 명령으로 동녕부를 폐지하고 서북의 여러 성들을 우리나라에 다시 돌려주었다. 왕이 그 총관이었던 한신·계문비를 대장군으로, 현원렬을 태복윤으로, 나공언·이한을 장군으로 각각 임명하였다.”라고⁵⁹⁾ 하여 고려 영토로 다시 수복되었다. 동녕부에 대한 반환 요구는 계속 있었지만(〈표 5-13〉-④·⑦·⑮), 충렬왕 16년에 수복된 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동녕부의 반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 1287년(충렬왕 13) 원나라에서 일어난 내안(乃顔)의 반란이었음은 추정 가능하다고 하겠다.⁶⁰⁾

59)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3월.

60) 동녕부의 반환 배경에 대해 방동인은 “합단적(哈丹賊)의 붕기가 바로 그 요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원은 고려에 대하여 그 중간지대에 놓이는 서북 제성을 돌려줌으로써 합단적과의 제휴를 사전에 봉쇄하고자 했을 것이고, 또 고려는 동녕부에서의 반고려적 주동자들을 안무함으로써 이들과 합단적과의 결합을 사전에 봉쇄한 것으로 추측된다.”라고(方東仁, 「東寧府 置廢小考」, 『關東史

고려에서 내안의 반란이 일어난 것을 파악한 것은 충렬왕 13년 5월이었고, 즉시 토벌군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원나라 조정에서도 이를 허락하였다.⁶¹⁾ 하지만 같은 해 8월에 반란을 진압했기 때문에 군사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전갈을⁶²⁾ 받았다. 이후 원나라 지역에서 내안 잔당들의 반란은 계속되었다.⁶³⁾ 그런데 고려 정부는 원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난 초기에는 적극적인 군사 동원을 시도했지만, 점차 본토를 수비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고⁶⁴⁾ 원나라에서도 고려의 군사 동원을 자제시키는⁶⁵⁾ 편이었다. 원나라는 고려에서 군사 동원보다는 군량 등을 조달하려고⁶⁶⁾ 했을 뿐 오히려 병기를 검열하여⁶⁷⁾ 고려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學』2, 1984; 『韓國의 國境劃定研究』, 一潮閣, 1997, 재수록, 110쪽)하였고, 주체 혁은 “1290년대에 이르면 전중국을 장악하여 당시까지 최대의 戶口를 파악할 정도로 몽골정권의 지배기반이 튼튼히 구축된 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1289년에 카이투가 카라코룸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1290~1291년 사이에 요양행정지역에서 쿠빌라이 대칸에 대항하는 카단(哈丹, Qadan)이 반란을 크게 일으켜 고려를 위협하여 다시 강화(江華)로 천도를 하기도 하였던 때였으므로 서북면(西北面)의 기지를 차라리 고려에 반환하는 것이 전략상 유리했다고 파악했을 수도 있다.”라고(앞의 논문, 1989, 36쪽) 하였다. 이들 논문에서는 동녕부의 반환을 원나라에서의 반란과 같은 내부 변화에서 그 배경을 찾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 61)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3년 5월 임인;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3년 6월 임술.
- 62)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3년 8월 정묘.
- 63)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3년 11월 을미, “公主至西京 聞賊起咸平府道梗 遂還”
- 64)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4년 2월 신유, “遣將軍吳仁永如元 時北賊叛亂 我國宜起兵助戰 而王難之 遣仁永入奏曰 今東鄙未寧, 請親率征北兵 移鎮雙城”
- 65)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4년 3월 임인, “將軍吳仁永還自元言 帝以乃顏餘黨復叛 發兵親征 以我國軍 戍東藩”
- 66)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4년 4월 경오;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5년 2월 병인.
- 67)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4년 7월 정해, “元遣總管金之茂來 閱兵器”;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5년 윤10월 기축, “元尙書省及樞密院差官來 閱東征日本時合浦兵器”

한편 동녕부 반환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던 사건이 내안의 잔당이었던 합단(哈丹)의 고려 침략 계획이었다.⁶⁸⁾ 이를 고려에서 파악한 것이 충렬왕 16년 정월이었고, 같은 해 2월에는 고려 군사를 동계 지역으로 파견하였으며⁶⁹⁾ 원나라에서도 쌍성을 수비하기위해 사람을 보내기도⁷⁰⁾ 하였다. 합단적의 침략 소식을 접한 충렬왕이 같은 해 3월에 원나라로부터 귀국하였고, 이를 계기로 몽골 황제의 명령으로 동녕부의 반환이 이루어졌던 것이다.⁷¹⁾ 충렬왕은 같은 해 7월에 부지밀직사사 정인경을 서북면도지휘사로 임명하여 서경(西京)을 지키게 하였다.⁷²⁾ 이로써 동녕부는 1269년(원종 10)부터 시작된 원나라 직할령을 마감하고 21년만에 고려 영토로 복구되었다.

결국 동녕부의 수복은 고려 정부의 지속적인 반환 요구와 원나라 내부의 혼란을 계기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후자는 1219년(고종 6) 거란유종(契丹遺種)을 고려와 몽골의 연합으로 강동성(江東城)에서 격퇴했듯이,⁷³⁾ 합단 세력이 고려를 정복 혹은 연합했을 때 원나라 자체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녕부 수복의 의의는 무엇보다 이후 탐라총관부의 반환과 쌍성총관부의 탈환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68)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정월 갑자, “將軍吳仁永等還自元言 乃顏餘黨哈丹賊 將侵我東鄙”

69)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2월 을해, “遣中軍萬戶鄭守琪屯禁忌山洞 左軍萬戶朴之亮屯伊川 韓希愈屯雙城 右軍萬戶金忻屯豢豸 羅裕屯通川 以備丹賊”

70)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3월 임자, “聞梨帖木兒遣人來 戍雙城”

71)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3월 정묘.

72)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7월 경신.

73) 『고려사절요』 권15, 고종 5년 12월, 고종 6년 정월.

나. 쌍성총관부의 탈환

쌍성총관부는 동녕부보다 먼저 설치되었지만 1356년(공민왕 5)에 고려의 적극적인 정벌에 의해서 탈환되었다. 그런데 고려 정부는 쌍성총관부에 대한 반환 요구에 있어서는 앞서 동녕부보다 소극적이었다.

〈표 4〉 쌍성총관부의 탈환 과정

①	고종 45년 11월	· 조휘 · 탁청이 화주(和州) 이북 땅을 들어 몽골에 투항 · 몽골에서는 화주에 쌍성총관부 설치
②	충렬왕 6년 7월	· 원나라 중서성에서 고려의 쌍성 민호(民戶) 추쇄 요구 수용
③	충렬왕 10년 정월	· 쌍성으로 도망한 자들을 조사 적발
④	충렬왕 12년 7월	· 쌍성의 유민을 추쇄하라는 황제의 명령을 받음
⑤	충렬왕 13년 8월	· 동녕부 역어중랑장 구천수가 쌍성의 첩자 홀도대와 덕산 등을 붙잡아 옴 · 낭장 정지연을 원나라에 보내 쌍성의 첩자를 체포한데 대하여 보고
⑥	충렬왕 14년 2월	· 원나라에서 합단적 침략에 대해 고려군 파견을 요청했는데, 충렬왕은 직접 쌍성에 주둔하여 방어하기를 청함
⑦	충렬왕 14년 4월	· 충렬왕이 북쪽을 정벌할 군사를 이끌고 쌍성을 지키겠다고 요청하였고 황제도 이미 허락하였음을 확인
⑧	충렬왕 14년 6월	· 쌍성 달로화적이 내조
⑨	충렬왕 14년 8월	· 만군(蠻軍)들이 쌍성에서 왔는데 남녀노소 모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몸에는 거적[苫]을 두르고 있어서 홍자번이 옷 200벌을 줌
⑩	충렬왕 16년 2월	· 중군만호 정수기를 금기산동에 주둔시키고, 좌군만호 박지량을 이천(伊川)에 주둔시키고, 한희유를 쌍성에 주둔시키고, 우군만호 김훈을 환가에 주둔시키고, 나유를 통천에 주둔시켜 합단적 침범에 대비함
⑪	충렬왕 16년 3월	· 도리첩목아가 사람을 보내 쌍성을 수비함
⑫	충렬왕 16년 11월	· 합단이 쌍성을 침입함
⑬	충렬왕 21년 4월	· 원나라 요양성(遼陽省)에서 쌀 3,000석으로 쌍성을 구출함
⑭	충렬왕 22년 7월	· 원나라에서 첩목아를 보내 쌍성의 인물을 추쇄함
⑮	충혜왕 원년 4월	· 5도 인민 가운데 쌍성 · 여진 · 요양 · 심양 등으로 이주한 유민에 대한 추쇄를 요구함
⑯	충목왕 3년 정월	· 쌍성 인구를 단속함

⑰	공민왕 4년 12월	· 환조[이자춘]가 쌍성 등의 천호로써 와서 왕을 알현함
⑱	공민왕 5년 3월	· 환조[이자춘]가 내조함 · 기철이 쌍성의 불온한 자들과 반역을 도모한다는 소문
⑲	공민왕 5년 5월	· 정동행중서성이문소 철폐함 · 평리 인당과 동지밀직사사 강중경을 서북면병마사로, 사운 신순·유흥, 전대호군 최영, 전부정 최부개를 부사로 임명하여 압록강 이남의 8찰을 공격하게 했으며, 밀직부사 유인우를 동북면병마사로, 전대호군 공천보와 전중부령 김원봉을 그 부사로 임명하여 쌍성 등을 수복하게 함
⑳	공민왕 5년 6월	· 쌍성 사람 조도적이 내조함
㉑	공민왕 5년 7월	· 동북면병마사 유인우가 쌍성을 함락함 · 화주·등주·장주·정주·예주·고주·문주·의주 등의 주(州)와 선덕진·원흥진·영인진·요덕진·정변진 등의 진(鎭)을 수복함

※ 이 도표는 『고려사』 권24~39의 내용을 참고함.

〈표 4〉에서 보듯이, 쌍성총관부는 고종 45년에 설치된 이후 원 종대에는 그곳과 관련된 자료가 『고려사』에서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동계 안집사가 보고하기를, 양주(襄州)의 백성 장세와 김세 등이 수령 및 아전·선비들을 죽이려고 음모하다가 발각되어 처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도당들인 천서 등이 가만히 고화주(古和州)의 조취에게 투항해 가서 그에게서 군사 400여 명을 청하여 가지고 양주에 들어와 인민들을 데리고 바다 섬으로 옮겨가 산다고 거짓말로 속여 지주(知州) 및 관리·인민들 1,000여 명을 배 3척에 나누어 강제로 싣고 가 버렸습니다.”라고⁷⁴⁾ 하였듯이, 저항 세력의 도피처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에서 보면 쌍성총관부가 ‘고화주’로 인식되었는데, 이는 화주가 쌍성총관부의 치소(治所)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쌍성총관부가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충렬왕 이후부터이다. 그 이유는 앞서 동녕부와 마찬가지로 유민 추쇄책에

74) 『고려사』 권27, 세가27, 원종3, 원종 12년 3월 기사.

따른 것이었다(〈표 5〉-②·③·④). 그 시기가 충렬왕 6·10·12년이라는 점은 제1·2차 일본 정벌 이후로서 고려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표 5〉-⑤에서 보면, 동녕부의 관리가 쌍성의 첩자를 체포한 사실이 있었다. 동녕부와 쌍성총관부는 원나라 직할령이었는데, 첩자의 존재는 상호 감시 혹은 직할령으로써의 경쟁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그 시기가 1287년(충렬왕 13)이었다는 것은 내안과 같은 원나라 내부 반란세력과의 연대에 대한 감시 목적이었을 것으로도 판단된다.

쌍성총관부가 특히 주목되었던 것은 합단의 침략이었다. 합단의 침략에 대해 같은 직할령이었던 동녕부의 경우에는 〈표 4〉에서도 보았듯이 적극적인 대비책이 거론되지 않았다. 쌍성총관부의 경우에는 쌍성의 달로화적이 고려 조정에 내조하기도(〈표 5〉-⑧) 했다. 그런데 쌍성총관부가 원나라 직할령이었지만 군사력이 정비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표 5〉-⑨의 만군(蠻軍)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때문에 합단에 대한 방어는 고려 정부에서 더 적극적이었다(〈표 5〉-⑥·⑦). 이는 “장군 오인영을 원나라에 파견하였다. 당시에 북방의 역적이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마땅히 병력을 파견하여 토벌을 도와야 할 것이었으나 왕이 곤란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오인영을 원나라에 보내 고하기를, ‘지금 동쪽 변방이 아직 평안하지 못하니 청컨대 내가 직접 북쪽을 정벌할 군사들을 인솔하고 쌍성으로 이동하여 주둔하고 있으면서 지키겠습니다.’라고 요청하였다.”⁷⁵⁾ “장군 오인영이 원나라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내안의 잔당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군대를 징발하여 황제가 친히 정벌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동번(東蕃)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⁷⁶⁾ 등의 자료

75)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4년 정월 신유.

76)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4년 3월 임인.

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합단적의 본격적인 침략에 대한 정보를 고려 정부에서 접한 것은 1290년(충렬왕 16) 정월이었다.⁷⁷⁾ 그런데 합단적의 침략을 계기로 동녕부가 충렬왕 16년 3월에 고려로 환수되었던⁷⁸⁾ 것에 비해, 고려 정부와 몽골이 서로 쌍성총관부를 적극 방어하려고 하였다(〈표 5〉-⑩·⑪). 같은 직할령이었지만 동녕부는 환수되고 쌍성총관부는 그대로 존치된 것은 비단 합단적의 침략이 그 계기였지만 고려 정부의 환수 노력이 쌍성총관부보다는 동녕부에 더 적극적이었던 것에서도 기인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합단적의 침략 경로가 고려의 서북면이 아니라 동북면이었던 것도 원나라와 고려 정부의 주된 방어 지역이 서북면에 있었음을 염두에 둔 결과였을 것이다. 따라서 충렬왕 16년 10월에 합단적의 기병이 원나라 개원로의 남경(南京)과 해양(海陽) 지경에 이르자⁷⁹⁾ 고려 정부는 강화도로 피신할 준비를 했고,⁸⁰⁾ 합단적의 고려 침략은 그해 11월 쌍성 지역에 대한 공략을(〈표 5〉-⑫) 시작으로 충렬왕 17년 6월에 그 잔당들이 소멸할⁸¹⁾ 때까지 지속되었다.

합단적 침략으로 쌍성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나라는 이를 고려로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려 정부의 환수 노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충렬왕 16년에 동녕부를 환수 받은 것에 일차적으로 만족한 결과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원나라는 쌍성에 대한 진흥과(〈표 5〉-⑬) 인구 단속(〈표 5〉-⑭·

77)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정월 갑자, “將軍吳仁永等還自元言 乃顏餘黨哈丹賊 將侵我東鄙”

78)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3월 정묘.

79)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10월 병신.

80)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11월 갑진;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11월 무신;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6년 11월 경술.

81) 『고려사』 권30, 세가30, 충렬왕3, 충렬왕 17년 6월 신미.

⑯) 등을 통하여 직할을 유지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고려 정부에서는 쌍성 등 원나라 지역으로 흘러들어간 유민 추쇄를 계속 요구하였다(〈표 5〉-⑮).⁸²⁾

쌍성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환수 노력은 공민왕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355년(공민왕 4) 12월에 이자춘(李子春)이 쌍성의 천호로써 알현하자(〈표 5〉-⑰), 공민왕은 “그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몸은 비록 외지에 있었으나 마음은 왕실에 있었으므로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들을 크게 가상히 여겼던 것이다. 지금 그대도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욕되게 행동하지 않으니 내가 앞으로 그대를 옥처럼 다듬어서 성공시켜 주겠다.”라고⁸³⁾ 회유하였다. 쌍성 지역의 천호였던 이자춘을 회유한 것은 그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준비였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표 5〉-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공민왕 5년 3월에 이자춘의 내조와 더불어 기철 등과 같은 부원세력을 쌍성의 불온한 자들과 반역을 도모했다는 혐의로 제거할⁸⁴⁾ 수 있었다.

부원세력의 척결은 고려와 원나라의 긴장관계를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쌍성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탈환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였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공민왕 5년 5월에 “정동행중서성이문소를 철폐하였다. 평리 인당과 동지밀직사사 강중경을 서북면병마사로, 사윤 신순·유홍, 전대호군 최영, 전부정 최부개를 부사로 임명하여 압록강 건너의 8개의 참(站)을 공격하게 하였으며 밀직부사 유인우를 동북면병마사로, 전대호군 공천보와 전종부령 김원봉을 그 부사로 임명하여 쌍성 등지를 수복하게 하였다.”⁸⁵⁾, “각 군대의 만호·

82) 方東仁은 합단적의 침략 이후에는 쌍성 지역에 대한 원나라의 지배가 이완되었고, 고려 정부의 환수 노력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方東仁, 『雙城總管府置廢考』, 『韓國의 國境劃定研究』, 1997, 182~189쪽).

83) 『고려사』 권38, 세가38, 공민왕1, 공민왕 4년 12월 신미.

84)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3월 갑진;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5월 정유.

진무·천호·백호의 패(牌)들을 회수하라고 명령하였다.”⁸⁶⁾, “강안전과 모든 절에 진병도량(鎭兵道場)을 차리고 5일간 계속하였다.”⁸⁷⁾ 등 원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강경책을 시도하였다(〈표 5〉-⑱).

쌍성 지역을 탈환하기에 앞서 고려 장수 인당이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파파부(婆婆府) 등 3개의 역참을 공격하여 격파하였다.⁸⁸⁾ 이는 앞서 압록강 건너 8개의 역참을 공격하게 한데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고려와 원나라의 연결 통로를 차단하기 위함이었고, 앞서 동녕부가 일찍이 고려로 환수됨으로써 압록강 너머까지 군사적인 행동을 펼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 정부의 군사 행동은 쌍성 지역 토착세력들의 동태에도 영향을 주었고, 급기야 조도적이 내조함에(〈표 5〉-⑳) 따라 금패(金牌)를 주고 고려쌍성지면관군천호의 벼슬을 주었다.⁸⁹⁾ 조도적이 고려 정부에 협력하였던 것은 최탄의 손자 조돈의 역할이 있었다.

조돈은 쌍성총관부의 총관이었던 최탄의 손자였다. 최탄의 총관 직책은 그 아들 조양기로 이어졌지만,⁹⁰⁾ 조양기의 아들 조돈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조카 조소생으로 이어졌다.⁹¹⁾ 조돈은 충숙왕 때 고려로부터 감문위 낭장과 좌우위 호군에 임명되었다가 충숙왕이 죽자 다시 최탄의 근거지였던 용진현(龍津縣)으로 돌아갔던 인물이다.⁹²⁾ 조돈이 총관이 되지 못한 데는 고려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지만, 조소생이 총관이 되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 수

85)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5월 정유.

86)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5월 임인.

87)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5월 계묘.

88)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6월 계축.

89)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6월 기미. 조도적은 쌍성총관부의 총관이었던 최탄의 후예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탄의 손자 趙暉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고려사』 권111, 열전24, 조돈).

90) 『고려사』 권130, 열전43, 반역4, 조휘.

91) 『고려사』 권111, 열전24, 조돈.

92) 『고려사』 권111, 열전24, 조돈.

없다. 하지만 조돈이 공민왕 5년 쌍성 지역에 대한 탈환 과정에서 고려 정부와 협력 관계를 형성한 데는 쌍성총관부 내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원래 고려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고려 정부의 적극적인 군사 행동과 쌍성 지역 인물들의 귀부는⁹³⁾ 원나라 연호 사용을 중지하기에까지⁹⁴⁾ 이르렀다. 이에 대해 원나라에서는 80만 병력을 동원하여 고려를 토벌하겠다고 위협하였다.⁹⁵⁾ 하지만 원나라의 군사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침내 공민왕 5년 7월에 동북면병마사 유인우가 이끈 병력에 의해 쌍성 지역을 탈환하였다.⁹⁶⁾ 이 과정에서 큰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고, 다만 총관 조소생과 천호 탁도경 등은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판령(伊板嶺) 북쪽의 입석(立石) 땅으로 도망치기도⁹⁷⁾ 하였다. 결국 1258년(고종 45)에 쌍성총관부가 설립된 이래 1356년(공민왕 5)까지 약 99년만에 고려 영토로 복구되었다(〈표 5〉-②1).

이 때 고려 영토로 탈환된 지역은 화주(和州)·등주(登州)·장주(長州)·정주(定州)·예주(豫州)·고주(高州)·문주(文州)·의주(宜州)·선덕진(宣德鎭)·원흥진(元興鎭)·영인진(寧仁鎭)·요덕진(耀德鎭)·정변진(靜邊鎭) 등이었는데,⁹⁸⁾ 『고려사』 지리지에는 함주(咸州)·길주(吉州)·복주(福州)·북청주부(北靑州府)·삼살(三撒) 등 4개 지역이⁹⁹⁾ 더 밝혀져 있다. 그런데 고종 45년 최탄과 탁청이 화주 이북의 땅을

93) 쌍성 지역의 대표적인 세력으로는 ‘趙暉—趙良琪—趙暉—趙小生’의 趙氏系列과 ‘李安社—李行里—李椿—李子春—李成桂’의 李氏系列 등이 있었다(金九鎭, 앞의 논문, 1989, 81~82쪽).

94)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6월 을해, “停至正年號”

95)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6월 을해, “元 因本國節日使金龜年于遼陽省 聲言發八十萬兵來討 西北面兵馬使印 請濟師以備”.

96)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7월.

97) 『고려사절요』 권26, 공민왕1, 공민왕 5년 7월.

98)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2, 공민왕 5년 7월.

99)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동계.

몽골에 붙였다고¹⁰⁰⁾ 하였는데, 공민왕 5년 7월에 탈환된 지역에는 등주·고주·문주·의주와 같이 화주 이남의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점은 쌍성총관부의 영역 혹은 지배 범위와 연결되는 것으로 원간섭기의 영역 변화과정에서 찾아보아야¹⁰¹⁾ 할 것이다.

따라서 고려의 쌍성총관부 탈환은 원나라의 지배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강역 설정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앞서 예종대 윤관의 9성 구축 당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4. 맺음말

고려왕조의 영토로서 원나라 직할령이었던 쌍성총관부와 동녕부는 고려의 동북 양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도 개경을 보위하는 중요한 지역이었고, 이를 원나라 직할령으로 삼았다는 것은 고려 중앙정부의 본토 장악력을 극도로 약화시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고려왕조는 이들 지역에 대한 반환을 끈질기게 요구하였다. 그 결과 동녕부는 20여 년 만에 수복되었던 반면, 쌍성총관부는 공민왕 5년에 직접 탈환할 때까지 유지되었던 차이가 있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쌍성총관부는 1258년(고종 45) 12월 조휘와 탁청 등이 몽골에 투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들이 몽골에 투항했던 고종 45년 12월이 시기적인 면에서 주목된다. 우선 고종 45년 3월에

100) 『고려사절요』 권17, 고종 45년 10월.

101) 方東仁, 앞의 논문, 1997, 182~189쪽과 이정신, 「쌍성총관부의 설립과 그 성격」, 『韓國史學報』 18, 2004, 279~288쪽에서는 쌍성총관부의 지배범위에 대해 분석하였다.

유경과 김인준 등이 집정자 최의를 제거함으로써 최씨정권이 무너졌고, 이를 기회로 몽골의 대대적인 침략이 감행되기에 이르렀다. 몽골의 기세는 강도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을 뿐만 아니라 국왕과 무인정권에서도 몽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갔다. 이런 상황을 더욱 압박했던 것이 조휘와 탁청 사건이었던 것이다.

쌍성총관부에 이어서 몽골의 직할령이 되었던 지역이 동녕부였다. 이 사건은 1269년(원종 10) 10월에 서북면의 최탄과 한신 등이 반란을 일으켜 몽골로 투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최탄 등이 저항을 일으킨 시기는 집정자 임연의 원종 폐위에 따른 몽골의 압력이 가중되어 새로운 전쟁의 기운이 감돌던 시점이었다. 따라서 북계에서 최탄 등의 저항은 임연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고, 원종과 몽골에게는 무인정권을 압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몽골에서는 이 지역을 곧바로 동녕부로 삼았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몽골의 행중서성에서 관리했다. 이는 앞서 동계의 조휘와 탁청 등이 투항했을 때 곧바로 쌍성총관부를 설치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들 원나라 직할령의 설치는 원종과 무인정권에게는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특히 동녕부 설치 과정에서 고려와의 국경에 대한 몽골 조정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는데, 이는 쌍성총관부가 성립되는 과정과 비교되는 점이다. 또한 『고려사』 등의 기록에서 보면, 고려왕조에서는 먼저 설치된 쌍성총관부의 반환보다는 동녕부에 대한 반환 요구가 더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반환 과정의 선후 문제를 떠나서 고려왕조의 영토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경을 중심으로 한 동녕부가 화주를 중심으로 한 쌍성총관부보다 왕조적 영토의식의 표출이 보다 더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쌍성총관부와 동녕부는 대몽항쟁의 실패에 따른 영토의 상실이었지만, 이후 이 두 지역의 수복 문제는 원제국 내의 고려왕조 위상과 직결되는 것이었다. 동녕부의 수복은 고려와 원나라의 결속이 더욱 공고하게 된 시기에 이루어졌던 반면, 쌍성총관부의 탈환은 반원(反元)의 의미가 강조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결과였다. 또한 이 두 지역은 향후 북방 국경문제와 연동되는 중요성을 지녔다. 따라서 이 두 지역의 설치와 수복 문제는 고려왕조 영토의식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원고투고일: 2016.3.30, 심사수정일: 2016.5.20, 게재확정일: 2016.5.23.]

주제어 : 원나라, 투항, 직할령, 쌍성총관부, 동녕부, 영토분쟁, 국경, 서경, 화주, 수복, 탈환

<ABSTRACT>

Th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late of Goryeo
Dynasty(918~ 1392)
- focusing on Ssanseongchonggwanbu and
Dongnyeongbu-

Shin, An-Sik

As the territory of the Goryeo Dynasty, the 'Jikhalryeong' (which means the territory of direct control of a country and union) of Yuan Dynasty were Ssanseongchonggwanbu and Dongnyeongbu. These were important areas to defend the Gaegyeong as the region of Northeast Yanggae. And having been made them to the Jikhalryeong of Yuan Dynasty could weaken mainland grip of the Goryeo Dynasty. Since the Goryeo Dynasty was persistent, it demands the return of these areas. As a result, while Dongnyeongbu that were returned in 20 years, Ssanseongchonggwanbu was maintained until 1356 when it was recaptured directly.

The installation of Ssanseongchonggwanbu was done when Johwi and TakCheong was surrendered to the Mongol in the December 1258. During this period, the Military Rule was destroyed by removing Choiui of Yoogyong and Kiminjun, and this situation has been the opportunity of a large-scale invasion of the Mongol. Mongolia pressures put a weight on the Gangdo government. Because of this reason, King and the Military Rule had no choice to accept the demands of Mongolia. It was more pressure this situation that was the surrender of Johwi and Takcheong.

Dongnyeongbu was established when it was surrendered to the Mongol by Choitan and Hanshin in October 1269. During this period,

Imyeon deposed king Wonjong, which was heightened the tension with Mongol. So it was applying that the resistance of Choitan etc in Bukgye was a great blow to the regime of Imyeon, king Wonjong and Mongol have been a good opportunity to pressure the Military Rule. However, in Mongol it did not make this region as soon as Dongnyeongbu, at first it was managed by Haengjungseoseong of Mongol.

Installation of Ssanseongchonggwanbu and Dongnyeongbu was quite as crisis situations to the king Wonjong and the Military Rule. In particular, there was direct mention of Mongolia on the border in Dongnyeongbu installation process, it was compared with Ssanseongchonggwanbu installation process.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was much more effort for the return of Dongnyeongbu than Ssanseongchonggwanbu first installed in the Goryeo Dynasty. This issue of the return process can be said that would be appreciated the territory consciousness of the Goryeo Dynasty.

Eventually, Ssanseongchonggwanbu and Dongnyeongbu were the loss of territory to be done from the failure of struggle with Mongolia, after returning problem of these two regions was directly related to the phase of the Goryeo Dynasty in the Yuan Dynasty. The return of Dongnyeongbu has been made when more close of the Goryeo Dynasty and Yuan Dynasty happened. The recapture of Ssanseongchonggwanbu was a result of anti-Mongolia. Since these two regions was also an important issue connected with northern border.

Key words : Yuan Dynasty, surrender, Jikhalryeong, Ssanseongchonggwanbu, Dongnyeongbu, territorial disputes, border, Seogyeong, Hwaju, restoration, recapture

